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지역연합 6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도로함몰 원인과 대책 물어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3일 제18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땅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수 강북구청장은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이 노후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손상과 도로 시공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 소홀이며,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에서 도로함몰

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 노후 하수관 관리강화와 굴착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3월 11일 서면으로 답했다.

또한 강북구 전체 하수관의 51.4%인 171Km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인데 2008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67Km를 정비하였고 201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 관내 공사 구간과 공사 중인 민간 대형공사장 4개소에곳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도로함몰, 보도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북부신문 6면



박문수 의원, ‘땅 꺼짐’ (도로함몰) 현상 원인 조사 및 대책 촉구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3일 제187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땅 꺼짐’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서울시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강북구의 대처방안과 구민의 안전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는 “도로함몰의 주

된 원인이 노후 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손상과 도로 시공불량 및 지하공사 관리 소홀이며,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에서 도로함몰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하수관 관리강화와 굴착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서면으로 답했다.